

기출문제 점검, 대학별 출제 경향 파악하라

지난달 말 정시모집 원서 접수 마감과 함께 상위권 대학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은 대학별로 치르는 논술에 대비할 때다. 지난 3일 연세대를 시작으로 고려대(9일), 서울대(12일), 서울교대·춘천교대(14일), 인하대(20일) 등이 잇따라 논술을 실시한다. 올해 정시의 논술고사는 주관식 서술형 논제나 풀이형 논제를 주는 등 학업 적성, 교과 지식적인 면이 매우 강한 것으로 예상되므로 남은 기간,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효과적인 논술고사 대비요령을 알아본다.

막바지 논술 준비 이렇게

대학의 논술 출제진이나 경향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반드시 기출문제를 점검해야 한다. 같은 답안 형식, 분량, 문두(問頭), 조건, 다른 주제형식 등을 알 수 있다. 기출문제라 함은 전년도나 올해 정시, 수시, 모의 논술 문항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시사 이슈 등 출제 경향을 보는 것이라면 다른 대학의 올해 수시 문제들도 좋은 자료가 된다.

시간내에 쓰는 연습을 하라

요즘 통합 논술은 다문항, 소논제가 대세다. 따라서 교육대를 제외하고는 긴 글을 쓰는 문제는 잘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도 제한된 시간 내에 답안지를 제출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 시간별, 분량별 글쓰기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특히 연필로 쓰고 다시 볼펜 등으로 덧쓰다 보면 시간이 모자란다. 미리 미리 시간을 재 가며 독해연습도 하고 답안 작성 연습을 해야 한다. 인문계열의 경우 독해 연습은 언어영역 참고서의 사회제재가 제일 좋다.

교과과정의 주요 이론을 복습하라

자연계는 수학과 과학에서의 심도 있는 교과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종종 출제된다. 또한 수학과 물리, 생물과 화학 등의 주제가 섞이는 등 과학과 수학의 통합적인 문제도 나온다. 심지어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선 대학 수학의 과정까지 언급이 되기도 한다. 논술 가이드라인이 폐지된 만큼 어느 정도의 풀이형 문제도 각오해야 한다. 그러므로 심도 있는 교과지식을 학습해야 한다.

교과서를 정독하라

출제진은 고교 교육과정을 참고하면서 반드시 고등학교 교과서를 보게 된다. 교과서의 학습활동 문제에서 힌트를 얻기도 하고 문제 자체를 출제하기도 한다. 따라서 인문계나 자연계 수험생들 모두 주요 교과서를 정독하면서 연습문제, 학습활동, 탐구문제 등을 스스로 정리하고 이해해야 한다. 개념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색인(索引)을 참고해도 좋다.

반드시 침식지도를 밟으라

단순히 문장이나 맞춤법 교정 수준의 첨삭이 아니라, 독해능력이나 문제 접근법, 논리적인 사고력 등 다양한 면에서 첨삭을 받아야 한다. 해당 과목의 담당 교사가 제일 좋긴 하나 부득이 하다면 학원 선생님이나 대학생 선배도 좋다. 오히려 지역적인 맞춤법보다는 거시적인 면에서 논리적인 흐름, 문제풀이의 접근법 등을 첨삭 받는 것이 좋다. 그리고 첨삭 후에 반드시 같은 문제를 다시 써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워 대학의 자료를 확보하라

대학마다 참고할 만한 자료는 꽤 많다. 특히 모의고사 분석집이나 기출문제 해설집 등이다. 수시 합격생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학에서 제작하여 배포한 자료들이 매우 도움이 됐다고 한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자료들은 출제진이 직접 만들어서 좋은 답안과 그렇지 못한 답안을 선별하고, 강평을 달았기 때문이다. 그런 자료들을 참고하면 좋은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 <도움말=중앙유웨이교육 이만기 평가이사>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조선대 국제봉사단이 필리핀 2주 봉사활동을 떠나기에 앞서 지난 6일 교정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조선대 제공>

수해 고통 필리핀으로

2주 봉사활동 떠나요

조선대 국제봉사단 14명 복구·방역 작업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수해로 고통 받는 필리핀 지역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친다.

조선대에 따르면 조선대 국제봉사단(단장 박대환 외국어대 독일어과 교수)은 7일부터 21일까지 2주 동안 필리핀 일로일로에서 수해복구 작업과 방역 및 의료 활동, 도로확장 공사, 야자수 나무심기 등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필리핀 일로일로는 지난해 6월 태풍으로 땅이 붕괴되 섬의 70%가 물에 잠기는 참사를 겪었다. 학생들은 일로일로 섬에서 빈민촌 청소를 비롯하여 방역 및 의료봉사, 수해복구 작업을 펼치고 인근의 귀라마스 섬에서 망고·야자수 심기, 도로확장 노력 봉사 활동을 갖는다.

봉사단 소속 학생 14명은 한 달여 전부터 해외 봉사활동을 위해 태권도 공연과 사물놀이, 아리랑 공연 등을 준비해왔다. 단원 각자의 특기를 살려 이미용 봉사를 비롯, 풍선 아트, 페이스 페인팅 등을 주민들에게 선보일 예

정이다.

학생 대표 정봉석(24·선박해양공학과 3년)씨는 “4~5대의 경쟁률을 뛰고 해외봉사단에 합류했기 때문에 단원들의 사기가 높아 올라 있고, 하려고 하는 의지도 굳다”며 “우리보다 어려운 저지의 해외 이웃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국제감각을 익히기 위해 영어만을 공용어로 사용키로 했다. 박대환 단장은 “국제화 시대를 맞아해 학생들에게 공동체의식을 심어주고 인류애를 구현한다는 취지로 매년 국제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며 “해외봉사를 다녀온 학생들은 어려운 이들에게 베푸는 동시에 더 많은 것을 얻고 온다고 입을 모은다”고 말했다.

국제봉사단 참가경비의 70%는 조선대가, 30%는 학생이 각각 부담하며, 참가 학생에게는 1학점이 부여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상위권 주요 대학의 논술고사가 실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막바지 논술 준비를 위해 대학에서 내놓은 기출문제 해설집 등을 참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해 말 광주교대 논술고사 장면. <광주일보 자료사진>

대학가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추진

호남대 2년 연속 우수대학에

호남대(총장 장병완)가 ‘2008년도 노동부 대학취업지원기능확충사업추진실적’에 대한 노동부 최종평가 결과, 지난 2007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노동부 대학취업지원기능확충사업추진 중앙평가 위원회는 전국 133개 대학을 평가해 우수 30%(40개교), 보통 60%(79개교) 그리고 미흡 10%(14개교)로 등급을 매겼으며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유일하게 호남대가 2년 연속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호남대는 지난 2007년 6월 학생들의 취업능력강화를 위하여 인력개발센터에 모의 면접실, 취업세미나실, 취업 카페 등 취업지원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2008년에는 취업강좌, 취업캠프, 취업진로지도 단기 강좌프로그램, 취업특강, 인·적성 검사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무료로 개설하는 등 학생들의 취업능력 강화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해왔다.

목포대 선박인력양성사업단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선정

목포대(총장 임병선) 선박기술인력양성사업단은 지역경제부가 실시하는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에 선정돼 2012까지 5년간 11억 5천만원을 들여 ‘전남조선기능인력양성사업’을 수행한다. 전남 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목포대는 조선업체 인력 공급을 위해 맞춤형 인재 교육과 장비 활용을 통한 고급 기술인력 양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목포대 관계자는 “전남지역에 위치한 조선소의 설계 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기본설계 및 구조해석 전문가 과정, 선박블록업체의 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기술관리자 과정 및 조선전용 생산설계 과정 등의 교육을 통해 지역 기업체 현장기술인력 및 예비기술인력 양성 지원으로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우수한 인력을 양성, 공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동신대 보건복지대 상담심리학과

전남 재난피해 심리지원센터 지정

동신대 보건복지대 상담심리학과가 전남 재난피해 자심리지원센터로 지정됐다.

동신대(총장 정기언)는 최근 전라남도 건설방재국은 재난피해자심리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의 가족, 신체상해자, 재산상의 손실이 크거나 직업 전환이 불가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치료활동을 벌이게 된다.

전남도 소방방재청이 지난 2007년부터 설립 준비에 착수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소방방재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동신대 보건복지대는 간호학과와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를 동시에 갖추고 있어 입체적이고 실질적인 재난심리상담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매일밤 8시부터 화려한 성인 쇼쇼!!

국민가수 인순이

1월 14일(수) 단독 출연!!

부킹/서비스 만족도 1위 광주 상무나이트

